

'기업현장 목소리 반영' ... 규제 개선

전주시, 소상공인 등 대상 '찾아가는 규제개선 토크' 실시 요구사항은 '중기 기 살리기' 와 연계 중앙부처에 건의

전주시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탄소융합기술원 입주기업과 소상공인, 드론 제조업체 등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개선 토크(Talk)'를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현장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에 로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을 현실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시책이다.

시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탄소복합소재 관련 규제 등 기업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개정 사항과 드론 등 중소기업들의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시는 수렴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역점사업인 '중소기업 기(氣) 살리

기' 프로젝트와 연계해 해당부서와의 의견을 조율한 뒤 전북도를 거쳐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비뚤목인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기업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올해 각 분기별로 1회 이상 산업단지과 기업체 등을 방문해 규제개혁 홍보 및 사례를 전파하고, 기업 및 상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 행태 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예산과장은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들이 규제개혁에 대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중앙부처 건의로 시민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재판 끝낸 박근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대형폐기물 배출문제 인터넷으로 신고하세요”

원산구, 업무시간 외접수불가능 문제 해소 위해 시스템 구축

배출자가 인터넷 접수 후 납부필증 인쇄 부착으로 처리까지 편리한 이용 가능

특히 배출자가 인터넷 접수·결제 후 납부필증을 인쇄해 부착하거나, 담당자가 접수 확인 후 현장에서 납부필증을 출력·부착할 수 있어 접수부터 처리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배출자 및 시스템 관리자가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구는 한달 동안 시범 운영을 통해 인터넷 접수 결제 및 모바일 웹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 보완한 후 오는 7월부터는 이 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고려해 구청 자원위생과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 후 현장 담당자가 배출품목을 확인해 스티커를 부착하는 기존의 방식도 병행할 방침이다.

백순기 원산구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신고절차가 간소화 돼 주민 편의가 증대되고, 대형폐기물 처리기간 지연과 폐기물이 길거리에 장기간 적체 되는 문제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원산구는 시민들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휴일 또는 야간시간에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이 급증하고, 기존의 전화신고 방식으로는 업무시간 외 신고 접수가 불가능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배출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배출을 원하는 사람이 홈페이지(<http://125.139.246.6>)에 접속해 배출품목과 장소, 일자를 기재한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수거업체에서 납부필증 확인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관협력 노후 주거환경 개선

전주시, 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와 주택 보수 나서

전주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가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낡고 오래된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했다.

시는 23일 건축직 공무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회원 30여 명이 함께 동산동 삼화연립에서 '너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한 상생협력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가 상생협력력을 바탕으로 소규모 노후연립주택에 대한 개·보수 지원 봉사활동에 나선 것은 지난 2015년 남소송동 영생연립과 지난해 인후동 남양연립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해당 연립주택은 현재 24세대가 거주하는 소규모 노후연립주택으로, 사용승인 받은 지 37년이 경과하면서 시설이 낡아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시 건축직 공무원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들은 이날 노후연립주택의 도색공사

와 화단벽돌정비, 현관출입구 센스 등 교체, 가스보관창고 지붕 설치, 단지 내 콘크리트 포장 등 시설 개선 및 보수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3월 열린 정례회의에서 해당 연립주택의 거주자 평균연령이 67세로 높아 스스로 시설개선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재능나눔 상생협력 봉사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한 주민대표 반부월 씨는 "좋은 분들 덕분에 낡고 칙칙하며, 바닥 콘크리트 포장이 깨지고 어둡던 연립주택이 환하고 밝은 새 연립주택으로 탈바꿈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송방원 전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소규모 연립주택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이 노약자 등 우리 이웃들의 거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재능과 나눔을 기여하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도내 시군교육장, "세계태권도선수권 성공 기원"

전북도 시·군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들이 태권도원을 찾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준비상황과 태권도원을 둘러보는 등 태권도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23일,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이하 재단)은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전북도 14개 시·군 교육장 및 교육청 관계자 40여명을 초청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T1 경기장과 국립태권도박물관·전망대 견학 및 태권도시범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했다.

전북도 시·군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의 태권도원 방문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동력을 모으는 동시에, 대회 이후 태권도원 활성화와 태권도원에서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재단 김중현 사무총장은 "재단은 조직위원회와 함께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대회 기간을 비롯해 향후 태권도원을 찾을 선생님, 학생, 교육청 관계자 등 모든 교육종사자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내적 자아 계발에 도움되는 태권도 프

로그램을 발전적으로 운영해 가겠다"고 했다.

한편,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170여개국 19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태권도원에서 개최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서운 여고생들, 여중생 집단폭행

정읍에서 여고생 5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읍경찰서는 23일 공동폭행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고생 A(16)양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 2일 오후 8시20분경 정읍시 시기동 정읍천변에서 여중생 B(15)양을 손과 발로 수습차려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B양이 평소 애인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폭행으로 B양은 머리와 팔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폭행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의식 향상 꾀한다

전북경찰청-현대차 전주공장, 교통안전문화 협약 체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23일 전북지방경찰청과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협약을 체결했다.

문정훈 공장장과 조희연 청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 이날 MOU는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이날 MOU에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과 전북지방경찰청은 어린이가 안전한 전북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각종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불의의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1억4천만원을 들여 보호색 신호등과 안전블루벨 설치를 지원하고, 전북지역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오는 7월 중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대규모 체험박람회형 로보카폴리 교통안전교실을 개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사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지역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